

보도 일시	2022. 1. 5.(수) 10:00	배포 일시	2022. 1. 5.(수) 09:00
담당 부서	체육국 체육정책과	책임자	과장 정태경 (044-203-3110)
		담당자	사무관 민수이 (044-203-3115)

2022년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 격려

- 1. 5. 문체부 장관, 훈련 여건 개선과 적극적 현장 소통 약속 -

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 황희 장관은 1월 5일(수)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‘2022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’에서 국가대표 선수단, 지도자 등 체육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이들을 격려했다.

훈련개시식은 황선우(수영)·김아람(쇼트트랙)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, 꿈나무 선수의 응원 편지 낭독 등 순서로 진행됐다.

이에 앞서 황희 장관은 선수, 지도자 대표들과 국가대표 훈련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 문체부는 올해 체육 분야 예산으로 1조 9,303억 원을 확보했는데, 이는 전년도 1조 7,594억 원보다 약 9.7% 증액된 금액이다.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(68억 원), 진천선수촌 내 진천후 육상트랙 설치(30억 원), 선수 훈련수당 증액(’21년 6만 5천 원→ ’22년 7만 원) 등 훈련 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.

황희 장관은 “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약 속에서 선수와 지도자 모두 노고가 많았다. 올해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, 선수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며, “국가대표 훈련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올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